■ 민족문화연구 제97호(2022.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441-470.
http://doi.org/10.17948/kcs.2022..97.441

한국전쟁기 조선인민군 내 로동당 단체의 설치와 귀결*

서홍석(徐洪錫)**

목 차

1. 머리말
2. 인천상륙작전 직후 조선인민군의 혼란상과 로동당 단체 조직
3. 조선인민군 내 당원 확대 전략과 당적 통제의 정비
4. 북한지도부의 전후 복구 구상과 인민군 출신자들의 당정간부 진출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 내에 로동당 단체를 설치했던 대내외적 요인과 과정을 검토하고 그 역사적 함의를 구명하고자 했다.

전쟁 초반 인민군은 승기를 잡았으나,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전세가 급변했다. 이를 계기로 일선 인민군 각 부대에서는 군사 규율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으며 지휘부 역시 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소련은 인민군 전체의 통솔 체계가 무너졌음을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을 인민군 지휘 라인의 명령 불복종 및 무질서한 군사 기강으로 지목하였다. 그리고 북한 지도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민군 내에 로동당 단체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인민군 내 당 단체의 설립은 곧 당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먼저 전투에서 공훈을 세운 병사들을 적극적으로 당원에 가입시켰다. 또한 입당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모범 구분대 창설 운동'과 같은 조직적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군 내부에 당원이 증가하자 이들에 대한 통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되었다. 이에 당원들은 부대 내에서

* 이 논문은 2021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수료.

지휘관을 도와 항상 모범적·희생적 모습을 보이도록 상호 단속했으며, 당 회의를 통해 당의 상부가 하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결국 당원이 된 군인들은 향후 북한 사회를 이끄는 간부로 주목받았다. 정전을 앞두고 북한 당국은 이들을 중앙의 당 학교와 각 도의 당 학교에서 수학하도록 하여 간부로 양성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1952년 말 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자, 로동당 차원에서는 제대한 군인들을 각 리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과정은 1950년대 북한의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이행에서 제대한 군인들이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기반이 되었다.

주제어: 조선인민군, 로동당 단체, 총정치국, 모범 구분대 창설 운동, 제대군인.

1. 머리말

우리 당[필자 주: 조선로동당]은 인민군을 제때에 옳게 창설하였고
그를 근대적인 무장으로 장비 훈련하였으며
인민군대 내에서 옳은 정치적 교양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능히 조국의 독립과 통일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헌신성 있고 강의성 있는 군대로 육성되였습니다.

(1951.2.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현 정세와 당면과업)』, 조선로동당출판사, 16면)

위의 문구는 1950년 12월 21-23일까지 북한 자강도 강계에서 소집되었던 조선로동당(이하 로동당으로 약칭함)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당시 김일성의 연설 가운데 일부분이다. 이 발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인민군의 창설 및 전투·정치 훈련에서 로동당의 전일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전쟁 이전에 조선인민군(이하 인민군으로 약칭함)은 로동당 단체가 설치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었으며, 이에 따라 군은 당과 인민위원회, 정부의 밖에서 자율적 존재로 창설·성장하였기 때문이다.[1] 실제로 1946년에는 로동당 스스로도 북한의 군이 당의 군대가 아닌 '전 인민의 군대'임을 천명하였으며, 군에 로동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조직을 설치하지

1)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1945-1961)』, 선인, 2005, 271-279면.

않고 군인 당원의 당증을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2] 그리고 인민군에 대한 이러한 원칙은 한국전쟁 초반까지 유지되었기 때문에[3], 1950년 말 군에 대한 당의 '급격한' 개입·통제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대체로 기존 연구들은 로동당과 인민군의 관계 변화와 그 목적을 구명하는데 초점이 모였다. 서동만은 군 내부에 당 단체가 설치되었던 이유를 인천상륙작전 이후 인민군의 혼란상과 비조직적인 후퇴,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 참전 이후 작전지휘권이 조중연합사령부(朝中聯合司令部)에 이관되자 '이중통수제(二重統帥制)'에 기반한 중국 측의 군 운용방식에 조응하기 위함이었다고 파악하였다.[4] 특히 그는 김일성이 조중연합사령부 구성 당시 상실한 인민군 통제권을 전쟁 직후 조직되었던 군사위원회의 계통에서 되찾고자 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고재홍, 이신재, 김영준은 북한-중국의 '갈등 구도' 속에서 김일성이 인민군 지휘권을 되찾기 위해 당적 계통인 '총정치국'을 활용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실질적으로 당이 군을 강력히 통제해 나갔다고 지적하였다.[5] 이런 점에서 인민군을 통솔하는 주체가 군사위원회인지 혹은 총정치국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그간의 연구 지형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일시적 후퇴기' 직후 다급하게 군 내에 당 단체를

---

2) 「군대 내 당조직에 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결정서 1946년 10월 21일)」, 『사료집』 30, 1998, 37면. 본 논문에서 이용한 『북한관계사료집』은 이하 『사료집』으로 약칭하고 간행기관(국사편찬위원회) 및 간행연도(1982-현재)는 생략한다.

3) 다만, 대체로 1949년부터 인민군 산하 제5·6보병사단이나 항공교도연대, 탱크교도연대, 정치학교, 제1·3군관학교, 기술훈련소 등 일부 부대에는 당 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는 로동당이 군대를 급속히 확편하고 내부의 일본군 출신자를 감시해야 하는 여건에서 당의 지도력을 관철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선호, 『조선인민군—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한양대 출판부, 2020, 596-610면 참조.

4) 서동만, 앞의 책, 398-427면. 이외에도 와다 하루키 저·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201-203면;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54-57면;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역사비평사, 2003, 204-205면 등의 연구가 참조된다.

5) 고재홍, 「6·25 戰爭期 北韓軍 總政治局의 位相과 役割」, 『軍史』 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143-180면;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한국전쟁 시기 북중 갈등을 중심으로」, 『군사』 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35-66면; *Kim Youngjun, Origins of the North Korean garrison state: the people's army and the Korean War*, Routledge, 2017, pp. 172-176.

조직한 배경과 인민군에 대한 통제 구조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당군관계'의 역학을 해명한 것에만 주로 천착한 나머지, 이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도외시했다고 본다. 즉, 전시의 조건에서 일선에 있는 로동당과 인민군이 어떻게 당 단체를 조직, 강화하였는지 혹은 당 단체 운영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당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하였는지 등에 대한 기초적 실체는 거의 드러내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공백 지점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전쟁 시기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군 내에서 당 단체가 어떻게 뿌리내리고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미약하다면, 군에 대한 당 통제의 성격과 의미 부여 역시 역사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당원으로 되었던 군인은 단순히 전투만을 담당하는 '전사(戰士)'의 역할에만 국한될 수 없었다. 북한 사회에서 특정 개인이 당원으로 발탁되는 일은 곧 사회의 핵심계층으로 인정받는 것과 다름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전쟁 이전부터 노동력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인민군 확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군대는 장차 국가건설을 담당할 북한 청년을 교양하는 공간, 군인은 정치적 식견과 문화적 소양을 담지한 '예비간부'로 여겨지기 시작했다.[6]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은 북한에서 전후 복구 논의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상황과 조응할 개연성이 높았다. 더욱이 1951년 중반부터 전선이 한반도 중부에 고착화됨에 따라 전쟁의 경험을 가진 군인들이 다시 사회로 환원될 수 있는 통로 또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인민군에 로동당 단체가 조직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었던 군인들은 전후 복구를 예비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주목받을 여지가 컸다. 이에 북한 당국이 사회로 진출하는 군인들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 논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 내 당 단체 설치를 소재로 그 전개 과정과 귀결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군 내 당 단체가 설치된 요인을 소련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며,

6) 서홍석, 「조선인민군 충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1948-1950)」, 『역사와 현실』 104, 한국역사연구회, 2017, 405-406면.

당 조직 설치 원칙과 방침을 정리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인민군 내부에 당 단체가 만들어진 이후 당원 확장정책과 당 조직의 공고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및 실제 운영 양상을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군에서 제대한 병력을 어떻게 기층 사회의 간부로 활용하려 했는지를 로동당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로동신문』, 『근로자』 등 북한의 공식 기관지를 우선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주된 자료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노획문서 가운데 인민군 비밀 지령·명령, 내부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으며, 이외에도 전쟁 시기 소련과 북한 당국자 사이를 오고 간 외교문서를 확인하였다.

2. 인천상륙작전 직후 조선인민군의 혼란상과 로동당 단체 조직

1950년 6월, 북한 인민군이 38선 전 지역에 걸쳐 전면적인 공세를 취함에 따라 한국전쟁은 시작되었고, 개전 초기의 전세는 북측의 일방적인 승리로 기울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전쟁 발발 직후 미국과 유엔은 긴박하게 대응하기 시작했고, 닷새 만에 남한에 대한 원조 제공과 참전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7] 이처럼 미국과 유엔의 '개입'이 가시화되자 북한지도부 내에서는 점차 우려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이미 7월 초엽부터 김두봉이나 홍명희와 같은 북한지도부 내 일부 인사들은 인민군이 미군의 힘을 당해낼 수 없으므로 승리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을 표출하였다. 특히 8월에 접어들며 미 공군의 폭격이 거듭되고 인천과 수원 일대에 유엔군의 상륙작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확산함에 따라, 북한 주재 소련대사로부터 비교적 '의연히' 전쟁에 대처한다고 평가받던 김일성마저 자신감을 상실해 나가고 있었다.[8]

무엇보다 9월 중순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전황의 급변은 그간 북한지도부와

7)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109면.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조선인민군 지휘기관들의 재편성과 조선인민군의 전투행동에 대한 보고서(1950년 7월 7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75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외무상에게 보낸 전문, 중국군의 참전 가능성에 대한 소련지도부의 입장을 묻는 북조선 정부의 질문(1950년 7월 1일)」, 같은 책, 96면.

인민군에 잠재된 혼란과 한계를 분출시켰다. 이 시기 인민군의 다수 부대에서는 명령 거부, 군관들의 도피・투항・잠적 및 반란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9] 인민군의 혼란은 지위고하, 상급・하급 부대를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폭발했다. 이러한 당대 모습을 가장 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1950년 10월 14일 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총정치국장 박헌영의 명의로 하달된 명령서다.[10] 이미 38선이 돌파당한 상황에서 "일보도 퇴각하지 말라", "명령 없이 전투장을 떠나는 자들은 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사형할 것" 등을 지시한 이 문건에서는 여러 명의 군관이 지휘를 포기하고 일반 병사로 가장하여 은신한 행위, 무기를 버린 채 견장을 떼어버리고 '적'에게 생명을 구걸한 점, 부대의 지휘관과 정치 간부들이 병사로부터 이탈하여 방어전을 수행하지 못한 사실들을 규탄하였다.

군 지휘관들의 이러한 태도를 염두에 둔다면, 일반 병사들의 반응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51년에 총정치국에서 발간한 어느 정치상학 교재에서조차 "전투원들이 적들의 강력한 화력에 혼겁되어 지휘관의 명령 없이 전투 대열에서 리탈됨으로서 인민군대에게 불리한 정세가 조성되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11] 한국전쟁 초기 서울에서 인민군 군사동원국에 근무했던 김정기는 후퇴 당시 인민군 부대의 실상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했다.[12]

> 당시의 인민군은 군사규율도 없었다. 패주하는 길에는 군관이 하사복을 입는가 하면 하사들이 군관의 견장과 모자를 쓰고 으젓이 자기의 군인 등록을 하는 것이다. 이것들이 한 번 가장해 놓고는 전일의 군관들에게 보복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기 부대가 모두 죽은 줄 알고 자기 소속 부대를 속여가면서 진급하려다가 다음날 탄로되어 총살된다.

---

9) 박명림, 앞의 책, 459면.

10) NARA, RG242, SA 2012, Box 5, Item 118,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70호」, 1950.10.14. 주목해야 할 점은 박헌영의 직위가 "총정치국장"으로 명시된 점이다. 이는 적어도 10월 14일 이전에 이미 인민군에 대한 당적 통제・개입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보여준다.

11)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전사 하사 정치상학교재 51-15, 비겁성과 소란 조장은 반역과 동등하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1951.5., 6면.

12) 김정기, 『密派(轉向間諜의 手記)』, 대왕사, 1967, 66면.

그리고 이러한 인민군의 붕괴에 대해 소련 측은 좌시하지 않았다. 북한 주재 소련군 총참모부는 인민군 전체의 통솔 체계가 붕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 근본 요인을 불량한 규율 상태와 명령 체계의 와해로 보았다. 대표적으로 인민군 제1・2군단 병력 대부분이 미군에 의해 차단・포위당하였던 요인에 대해서는 군단 사령부가 김일성의 퇴각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지적하였다.[13] 이는 명백히 전선사령관 김책의 명령 불이행이었으며,[14] 심지어 당시 서울 부근에 머물던 민족보위상 최용건조차 연락 두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처럼 인천상륙작전 직후 인민군은 최고 지휘부 라인조차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정도로 무질서했고, 북한지도부가 갖는 위기감 역시 심대하였을 것이다.

이에 10월 1일 소련의 스탈린은 직접 북한 주재 소련대사에게 전보를 보내, 38선 이북에서의 전투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한반도 이남 지역의 병력을 반드시 철수시켜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15] 무엇보다 스탈린의 지령에서는 다음의 내용이 주목된다.

> 기존 상황은 강력한 지도부와 튼튼한 방어체계를 수립하는 임무를 강력히 수행할 수 있는 지도부의 개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도부를 불신하는 기존 분위기를 일소해야 하며, 각자에게 국방과제의 개별적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탈린의 지침은 곧 강력한 방어체계의 구축을

---

13)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소련 대사에게 보낸 전문, 중국 정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군대 원조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데 대하여(1950년 10월 1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162면.

14) 당시 김책의 명령 불이행은 북한지도부는 물론 소련 측에게도 큰 충격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1950년 11월 조중연합사령부 구성 당시 북한 로동당 정치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사령부의 부사령관에 김책을 부임시키려 했으나, 슈티코프는 그가 전선사령관으로서 3개 사단의 철수에 대한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사령관 임명이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외무성 제1부상에게 보낸 전문, 조중연합사령부 구성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내각 수상과 회담한 결과(1950년 11월 24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217-218면.

15) 「소련 내각회의 의장이 북조선 주재 소련군 총참모부 대표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에게 보낸 전보, 조선인민군 총사령부 참모부 내 소련 군사고문단의 주요 행동지침에 대하여(1950년 10월 1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559-560면).

위해 지도부의 개편, 즉 인민군 지휘 체계를 재구성하고 업무 분담의 명확성을 기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인민군이 전반적으로 노정했던 혼란과 명령 불이행, 무질서한 규율이 자리하고 있었다.

스탈린의 명령이 전달된 지 약 열흘 후인 10월 11일, 유엔군이 전선을 밀고 올라오는 와중에 북한의 김일성, 김책, 박일우, 소련 측에서는 슈티코프 소련 대사와 바실리예프 장군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16] 그리고 이 회의 결과 인민군의 정치사업 강화를 목적으로 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인사들의 전선 파견이 결정되었다. 10월 13일 슈티코프가 소련 외무성에 보낸 전문에서도 로동당의 지도자급 간부 다수가 인민군으로 이동함을 밝혔다.[17] 이는 인민군에 대한 로동당의 통제가 서서히 시작됨을 의미함과 동시에 군에 당 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일종의 정지작업이 착수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특히, 해당 문건에서 인민군의 정치사업과 군기(軍紀)를 총괄하던 김일이 "전(前) 문화부상"으로 표기된 점은 인민군의 문화부가 총정치국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늦어도 10월 14일이면 박헌영이 인민군 산하 문화부의 후신인 총정치국에서 장(長)의 직책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지도부는 인민군 내에 로동당 단체를 조직했다. 1950년 10월 21일 대유동 광산 분광(分鑛) 사무실에서 열린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회의에서는 인민군에 당 단체를 조직하며,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한다고 결정했다.[18] 본 결정에서는 군 내에 당 단체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 인민군에 당 단체가 부재하여 각 부대 내에서 규율이 불량하고 무질서한 현상들이 존재했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특히, 지휘관들의 명령 불이행 문제는 이후 1950년 12월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안이다.[19]

---

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내각회의 의장에게 보낸 전문, 전선의 안정과 중국군의 조선 투입에 대한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참모부의 계획에 대하여(1950년 10월 12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559-560면.

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가 소련 외무성 제1부상에게 보낸 전문, 조선의 정치정세에 대하여(1950년 10월 13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559-560면.

18) 「인민군대 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1950년 10월 21일)」, 『김일성전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354-360면; 박명림, 앞의 책, 515면에서 재인용.

1950년 12월 초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상신한 문서에서는 인민군에 로동당 단체가 설립된 배경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 여기에서 소련대사는 인민군의 규율 문제를 지적한 스탈린의 지침이 정확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 문화담당 사령관[필자 주: 김일]을 직위에서 해제했고, 이 부문의 지휘를 원로급 당 간부들로 강화시키면서 총정치국으로 재조직"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1950년 10월에 인민군 내 당 단체가 조직된 연유는 군 지휘체계 및 군사 규율 문제에 대한 소련의 문제 제기와 여기에 공감한 북한지도부가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1950년 10월 말 인민군에 당 단체를 조직한다는 방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 먼저 총정치국장 박헌영은 당 단체를 지도하는 기관의 위원 및 대표회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일선 부대에 명령하였다.[20] 지도기관 위원과 대표회 대표자로 선발될 조건으로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전투에서 헌신성·모범성을 발휘하였으며 국가와 당에 공훈이 있는 군관, 하사, 전사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선거 절차에 대해서는 입후보자의 군사·정치 생활 청취, 입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토론을 거쳐 회의 참가자의 거수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21]

이와 함께 일선 부대에서는 당원등록사업도 실시되었다. 당 단체 지도기관 위원과 대표회 대표자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분이 당원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19) 약 6개월 간 진행된 전쟁을 총화하면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대의 규률성이 약하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대장들과 지휘관들은 상급의 명령을 제때에 실행하지 않으며 그 명령을 관철하기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내에서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전투를 옳게 조직하지 않았음으로 우리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한 무정은 제2군단장의 직위에서 철직 당하였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군관들 가운데는 리기주의적 개인생활에만 급급하고 부하를 건지지 않고 비겁성을 표현한 사실들도 있습니다. 김한중, 최광 등과 같은 사단장들이 바로 그 대표적 실례로 됩니다."(NARA, RG242, SA 2011, Box 9, Item 25.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三차 정기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 조선로동당출판사, 1951년 2월, 20-21면).

20)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조선인민군대 내 각급 당단체 지도기관 선거에 대한 지도서」, 1950.11.13.

21) 다만, 당시 인민군 지도기관 위원 및 대표회 대표자 선거가 실제로 실시되었는지 불분명하다. 후술하겠지만 1952년도에도 인민군 내에서 당 단체의 결산 및 선거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다수의 문헌 기록에서는 이 사업이 역대 최초였다고 지적하였기 때문이다.

시작하였다. 당증이 없어서 입후보 자체를 차단하거나, 특히 로동당증이 미처 발급되지 않았던 과거 중국 공산당원 및 남로당원들의 선거 참여가 제한되었던 것이다. 이와 반대로 당증이 없는 자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당사자의 말만 믿고 입후보 자격을 부여한 일도 있었다.[22] 이에 박헌영은 두 가지의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남로당원의 경우 시·구역·군의 당 위원장 혹은 조직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둘째, 중국 공산당원의 경우에는 해당자의 선거 입후보 청원서 및 이력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당원 2명 이상의 인증서를 받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당증을 분실하거나 소각·처분한 자의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받고 이를 총정치국 당지도처에 제출하도록 했다. 끝으로 당원등록 사업은 11월 20일까지 종료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50년 11월 29일 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조선인민군 내 당단체 사업규정"(이하 사업규정)을 비준하였다. "군대 내의 조선로동당의 조직적 및 동원적 역할을 강화할 목적으로 조선인민군 부대들과 련합 부대들에 당단체를 조직한다."고 시작하는 이 규정에서는 인민군 내 당 단체의 지도기관이 로동당 중앙위원회이며, 중앙위원회는 인민군 총정치국을 통해 당 단체를 지도하고 인민군 내 정치부와 정치부대장이 직접 모든 당 단체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하였다.[23] 그리고 군대 내 당 단체의 명칭이 각 단위에 따라 제시되었는데, 중대에는 당세포, 대대에는 대대당위원회, 연대에는 연대당위원회가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사단과 군단, 총정치국에는 당 조직 문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당 꼬미시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민군에 로동당 단체의 조직을 위한 기초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요컨대, 인천상륙작전을 기점으로 인민군의 기층은 물론 최고 지휘 라인에 있는 인물들까지 가공할 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지도부로 하여금 인민군의 기강과 정치사업 강화를 모색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로동당이 인민군 내에 당 단체를 설립하여 군의 군사규율과 전투능력을 제고

22)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인민군 각종 부대와 기관들에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1950.11.17.
23)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조선인민군내 당단체 사업 규정, 1950년 11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준」, 1950.11.29.

한다는 방침이 채택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리하여 전쟁 이전 유일하게 당 단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군대에도 로동당의 영향력이 침투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이는 인민군 내에 로동당원의 확보와 당 조직의 확장 여하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3. 조선인민군 내 당원 확대 전략과 당적 통제의 정비

인민군 내 당 단체의 설립은 곧 로동당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역설적으로 한국전쟁은 인민군 병사들이 당원이 되는 기회의 통로이기도 했다. 전투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군인들의 사기를 고양하는 방편으로 그들을 로동당에 가입시키는 것이 일종의 특전으로 활용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군인들에게 당원이 된다는 것은 주권자인 인민으로서 사회의 핵심 계층에 진입함을 의미했다.[24] 한편으로 북한지도부로서는 참전한 병사들에게 당원이 되는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전투에 임하도록 하여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실 군 내 당 단체 설치 이전부터, 북한지도부는 정책적으로 모범적인 군무자들을 당원으로 흡수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7일 인민군 전선사령부 문화사령관 김일은 지령을 통해 전쟁에서 우수한 전과를 거둔 전투원들을 당원으로 발탁하고, 이를 통해 다른 병사들의 투지를 앙양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25] 이러한 조치는 비단 군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고, 로동당에서도 상응하는 대책을 입안해야 했다. 이에 로동당 중앙본부 부위원장 허가이는 당 조직위원회에서 인민군 병사들의 입당 수속 절차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26]

---

24) 한성훈, 『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2012, 407면.

25) NARA, RG242, SA 2009II, Box 불명, Item 불명, 「지령, 전투행정에 있어서 당사업 강화에 대하여」, 1950.7.17. 이와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문건에는 입당이 가능한 병사의 조건으로는 ①전투에 직접 참가한 자로서 전투에서 영명한 헌신성으로서 전투 승리에 커다란 역할과 모범성을 발휘한 자, ②20세에 달한 자, ③당 연한이 1년 이상 되는 보증인 2명의 보증서 제출이다(NARA, RG242, SA 2010, Box 1, Item 42, 문서명 불명, 1950.7.19). 이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당시 일반적으로 당원을 선발하는 기준이었다.

26) NARA, RG242, SA 2006, Box 불명, Item 불명, 「전선에 있어서의 인민군대 내의 신입당 수속에 대하여」, 『1950 성분지시분철, 제315군부대 문화부』, 1950.8.2.

1. 입당지원자는 당원 2명의 보증서를 첨부한 개별적 입당지원서(입당수속 이력서와 자서전은 첨부하지 않음) 문화부 중대장에게 제출한다. 문화부 중대장은 입당지원서와 보증서를 검토하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부 연대장(여단에서는 문화부 대대장)에게 제의한다.
2. 문화부 연대장은 접수한 입당문건을 검토하고 지원서에 입당 가부에 대한 의견을 기입하여 문화부 사단장(여단)에게 제의한다.
3. 문화부 사단(여단)장은 입당에 대하여 최후적으로 비준하고, 입당을 허가한 자에 대해서는 5일 내로 당 문건(임시 당원증명서 및 보고표)을 작성하여 수여하고 보고표는 당 중앙본부에 송부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민군 병사를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경로의 출발점은 중대의 문화부 중대장에게 있었다. 문화부 중대장이 입당 지원자의 지원 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연대 단위의 문화부 연대장에게 제출하면, 문화부 연대장은 지원자에 입당에 대해서 가부의 의견을 문화부 사단장에게 상신하고, 문화부 사단장이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와 함께 당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인 모범적·희생적 전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명단 확보를 위한 대책도 고안되었다. 앞서 언급한 8월 2일 김일 명의의 지령에서는 전쟁에서 탁월한 공훈을 세운 군인들에게 훈장 및 메달 수여 사업과 관련 통계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7] 특히, 통계사업의 면밀함을 강조한 점은 모범 군무자에 대한 전반적 파악은 물론 향후 원활한 당원 모집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전쟁 시기 노획된 인민군 관련 자료철 가운데에는 중대 혹은 대대의 지휘부가 훈장이나 상패를 받은 소속 병사들의 공훈 내용을 기록한 문서들이 많다. 이 가운데 105탱크사단 206군부대 76mm 대대의 훈장 수여 대장을 보면, 훈장을 받는 병사의 인적사항과 함께 실제 훈장을 수여한 경위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 특히, 이 문건에서는 해당 부대의 부대장이 직접 추천서와 수훈자 공훈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민족보위상과 총참모장의 결론 및 내각 부수상 김책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의 확인란을 따로 두고 있어서 보고의 정확성

27) NARA, RG242, SA 2010, Box 836-2, Item 53, 「모범전투원 표창사업 강화에 대하여」, 1950.8.2.

・신뢰성을 담보토록 한 점이 주목된다.[28]

무엇보다 훈장 수여자의 정당 관계를 분명히 기재하도록 명기한 점은 해당자가 당원이 아닐 경우 당원으로 포섭하려는 방안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어느 일선 부대에서는 모범 전투원 등의 표창 문건을 정리하고 훈장수여식을 성대히 조직할 것이 결의되었는데, 이 사업은 '당 장성 사업'과 병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29] 인민군 내 당원 확장 방침과 모범 군무자 훈장 수여 사업이 긴밀히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모범적・희생적 전과를 올린 자들에게 당원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대전제 아래, 인민군 각 부대에서는 전폭적으로 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되었다. 1950년 11월 29일에 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비준한 사업규정에서는 전시에 한하여 입당에 대한 결정권을 각 정치부의 연대장(여단에서는 정치부 대대장)이 갖도록 했다. 입당에 대한 최종 비준권이 기존에는 사단 단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조치는 입당 수속 절차를 간소화하여 당원 확대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화선입당자(火線入黨者)' 가운데 당원으로 인정할 만한 문건(당원증명서, 임시당원증명서, 당원 이동증명서 등)이 없어 정식으로 등록되지 못한 병사들은 전선 및 후방 사업에서 충성과 헌신성을 발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입당을 허가하기도 했다.[30] 이 외에도 당원 가입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 역시 어느 정도 군에서 당원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된다.[31]

인민군 내 당원을 확장하기 위한 방침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부대 단위로까지 이어졌다. 일례로 1951년 2월 인민군 창건 3주년을 기념하여 전체 부

28) NARA, RG242, SA 2009, Box 6, Item 39, 「훈장 수여장(홍수상, 림용덕) 초안」, 일자 미상.
29)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지시, 사단 정치부장 동지의 지령 이첩에 대하여」, 1951.3.14.
30) 「당 단체들의 조직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결점에 대하여(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결정서 1951년 11월 1일-4일)」, 『사료집』 29, 120면.
31) 「당 장성에 대하여(당 중앙정치위원회 제100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0월 9일)」, 『사료집』 29, 149면. 전시 북한에서 징병제 실시를 위해 18세부터 군사증을 교부했기 때문에, 18-19세의 병사들은 원천적으로 입당이 불가하였다. 이런 점에서 '화선입당(火線入黨)'을 활발히 전개되었던 전시 기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입당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 역시 군 내에서 당원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

대에서 '모범 구분대 창설 운동'이 전개되었는데,[32] 실제 655군부대에서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모범 중대 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로 '당 장성' 부문에서의 성과를 강조하였다.[33] 왜냐하면 당원의 증가는 곧 해당 부대에 전투와 정치학습에 우수한 병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민군 각급 당 위원회에서는 관하 부대의 '당 사업'을 평가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당원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고, 또 이들에 대한 교양을 어떻게 실시하는지를 매월 평가하기도 했다.[34] 이처럼 당원의 확보는 부대 내 당 단체의 업무 가운데 중요도가 높았으며, 상급 당 조직에서는 그 추이를 주기별로 확인하는 가운데 산하의 당원 관리에 힘썼다.

대체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군 내에서 당원들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본 사업이 원만하게 수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일부 당 단체에서는 당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 성분의 비율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35] 전시의 여건에서 당원 수 확보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발로된 문제였을 것이다. 이와 함께 비당원인 모범적 군인들이 당원들과 교제 연한이 짧다던가 혹은 군 복무 기간이나 교양 수준이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당에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존재했다. 그런가 하면 일단 당원 '배가(倍加) 사업'에만 천착한 나머지, 신입 당원에 대한 지원과 교양을 등한히 하는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36]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쟁 시기 인민군에서는 당원들이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즉, 이 기간에 새롭게 로동당원이 된 수는 무려 14만여 명에 달했다.[37] 전쟁 기간 북한에서의 입당자 수가 40만 명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전체의 약 1/3이 '화선입당'을 통해 당에 들어간 군인들이었다. 또

32) 「인민군 창립 3주년 기념, 모범구분대 창설 운동 전개」, 『로동신문』, 1951.1.28.
33) NARA, RG242, SA 2012, Box 5, Item 132, 「655군부대 발간, 전투통보 제36호」, 1951.3.30.
34) NARA, RG242, SA 2009, Box 10, Item 17, 「월말 사업보고 작성에 대한 지도서(인민군 27사 7연대 당 위원회 조직부」, 일자 미상.
35) 「당 장성사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들」, 『로동신문』, 1951.10.3.
36) 「부대 내 당조직 사업 강화에 노력」, 『로동신문』, 1951.12.16; 「젊은 당원 교양은 당 단체들의 당면한 중요 과업」, 『로동신문』, 1951.12.16.
37) 리권무, 『영광스러운 조선인민군』, 조선로동당출판사, 1958, 52면.

한 휴전 당시 인민군 병력 총 숫자가 28만 4천여 명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보면 군 내 당원의 비율은 약 50%로, 일반의 경우보다 훨씬 높았다.[38] 그리고 이와 같은 군 내 당원 수의 급격한 증가는 그만큼 북한지도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당원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부대 내에서 이들의 활동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당원에 대한 통제는 개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미 전쟁 시작과 함께 군대의 당원들에게는 당 사업과 전투적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주변 병사들을 집결시켜 용기와 인내를 직접 보여줄 것이 요청되었다.[39] 이런 맥락에서 1950년 7월 16일 인민군 후방사령부 문화국장 서휘는 "부대의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함에 있어서 부대의 골간이며 핵심인 로동당원들과의 당적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자원성과 열정과 모범성을 일층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40]

당원들은 전투와 부대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받았고, 이는 군 내 당원 확보 문제와 '동전의 양면' 관계를 맺으며 당원의 자발성을 추동하였다. 실제로 선전적인 성격임을 염두에 두더라도, 전쟁 시기 『로동신문』에는 일선 전투 현장에서 선봉적·결사적으로 활약한 당원들을 소개하는 기사가 꾸준히 게재되었다. 이를테면, '적'의 영구화점(永久火點)을 공격·파괴하기 위해 당원들로만 결사대를 조직하여 전투를 벌였다던가 혹은 고지 탈취를 위해 당원이 앞장서서 공개회의를 개최하고 그들이 선봉대로 나섰다는 기사 등은 당원의 모범적 역할을 환기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41]

그러나 이러한 임무 수행에는 분명 당 단체의 '압력'도 작용하였다. 앞서 살펴본 서휘의 명령에서는 중대나 소대별로 3-4명씩 핵심당원을 선발하여 이들이 지휘관의 명령과 지시를 선봉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실제로 어느 일선

38) 서동만, 앞의 책, 422면.
39) 「전체 당단체들과 당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편지(1950년 6월 27일)」, 『사료집』 29, 137면.
40) NARA, RG242, SA 2010, Box 914, Item 127, 「지령, 부대 내에서 로동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당적 사업 강화에 대하여」, 『상부 지시문철』, 1951.7.16.
41) 「당의 적절한 지도로 전투임무를 끝까지 완수」, 『로동신문』, 1951.7.6.; 「당 앞에 맹세한 고지 탈취를, 윤영호 중대원들의 빛나는 공훈」, 『로동신문』, 1951.7.16.

부대의 지령서에는 전투 명령의 완수를 위해 “중요하고 위험한 장소에는 어떤 열성당원에게 과업을 주어 보장할 것인가를 타산”할 것으로 기재되었다.[42] 이처럼 인민군 병사들은 입당을 허가받기 위해서 모범적 활약을 보여야 했고, 당원이 되어서도 주어진 임무를 희생적으로 감내해나가야 했던 것이다.

군에 대한 당의 통제는 당원 개인을 넘어 조직적인 방식으로까지 나아갔다. 군의 특성상 각 단위의 지휘 라인에 따라 상급 부대가 하급 부대의 당적 활동을 지도·감찰하는 사업들이 수행되었다. 그 계통을 일별하면 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인민군 당 단체의 최종 지도기관이되, 총정치국을 통해 이를 구현하였다. 다음으로는 총정치국과 군단, 사단에 당 조직 문제를 심의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로서 ‘당 꼬미시야’를 두고, 그 하부에 연대-연대당위원회, 대대-대대당위원회, 중대-당세포가 조직되며 해당 정치부가 당 단체를 지도하는 체계가 구성되었다.[43] 다만, 이러한 검열의 체계는 단지 명목적인 단계에 그치지 않았는데, 이른바 ‘정치 통보’가 이를 보장하였다. 1951년 2월 총정치국장 대리 신분이었던 김재욱은 관하 부대에 지령을 내리고, 부대 내 당 조직 및 사업 현황과 당원들의 정치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조직, 부대 내 당원들의 선봉적 활동에 관한 성과 등을 매월 2차례씩 상부에 보고하도록 했다.[44]

나아가 이와 같은 조직적 통제를 주기적으로 담보했던 수단이 인민군 내 당원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했던 당 회의였다. 총정치국에서 발간한 자료에서는 당 회의를 ‘공산주의 학교’로 지칭할 정도였다.[45] 당 회의는 주로 당원들의 생활과 정치교육 상태를 점검하고, 부대 내에서 군사 규율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실제로 인민군 제8사단 산하 부대에서 기록한 로동당 회

42) NARA, RG242, SA 2009, Box 10, Item 15, 「세포사업계획서 작성 방법과 그의 집행에 대하여, 인민군 27사단 정치부」, 1950.12.26.

43)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조선인민군내 당단체 사업 규정, 1950년 11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준」, 1950.11.29, 1-2면.

44) NARA, RG242, SA 2012, Box 1225, Item 불명, 「정치통보사업 강화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지령 제26호」, 『297부대 정치부』, 1951.2.17.

45)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당 회의는 당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학교이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1951.9, 1면.

의록에는 당 단체의 활동과 한계점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46] 이를테면, 당원이자 분대장인 군인이 '제왕식 군벌주의와 관료주의적 작풍'으로 지휘하여 부대원들이 탈주하고 월남하거나, 개인화기를 관리하지 못해 무기에 녹이 슬고 수류탄을 분실하는 당원들은 가감 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심지어 전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과 음주를 하다가 적발된 당원도 존재했다. 이처럼 부대 내 당원들은 당 회의에 참석하여 '자아비판'을 하거나 다른 당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시·보고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었다.

이와 함께 당 조직 내 다양한 비위행위는 면밀한 비판사업을 통해 상부에 빠짐없이 보고되었다. 어느 중대 세포에서는 당증을 잃어버린 당원과 전투 시 엄호사격 명령을 즉시 수행하지 못한 당원에 대해서 상급 기관인 대대당위원회에 보고하여 책벌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47]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대 내에서 군사 규율을 유지하고 '태만분자'를 적발해 내기 위한 '생활 검토 회의'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처럼 부대 내 당 회의는 구조적·심층적 수준에서 당원 개인과 당 조직을 검열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무엇보다 인민군 내에서 로동당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궁극적 수단은 지도기관 성원에 대한 선거의 방식이었다. 본래 사업규정에 따르면 '당 꼬미시야' 및 연대당위원회 성원들은 1년마다 선거를 통해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각 단위의 당 단체 성원들이 당해 연도의 실적을 총화하고 당원 병사들의 실태를 점검하여, 강력한 '당성'을 지닌 이들을 당 지도기관에 배치하기 위함일 것이다.

특히, 1952년 7월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되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당 사업과 당 단체 지도기관 성원들의 결함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48] 최상위층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일부 장령 및 군관들의

46) NARA, RG242, SA 2011, Box 8, Item 11,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당 공급세포 회의록」, 1951.1.26; NARA, RG242, SA 2011, Box 8, Item 11,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제6중대 세포 제7차 총회」, 1951.1.24.

47) NARA, RG242, SA 2011, Box 8, Item 11,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제5중대 세포 제□차 총회」, 1951.1.25.

48) 「인민군대 내 당 정치사업 진행 정형과 그 강화를 위한 금후 제 대책에 대하여(당 중앙 정치위원회 제125차 회의 결정서 1952년 7월 7일)」, 『사료집』 29, 183-186면.

당성이 해이해져 있음이 비판되었고, 정치기관과 당 단체의 군대 통제 역시 불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를테면, 일부 군사·정치 간부들은 일반 병사들과 접촉하지 않고 부대의 대오 관리에 태만했으며, 군사규율과 규정을 때때로 위반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엄폐호나 토굴에서만 생활하는 현상들이 규탄되었다.

이에 총정치국에서는 부대의 전투 활동에서 당 단체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중대 당세포로부터 연대의 당 지도기관에 이르기까지 사업결산 및 선거를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실제로 1952년 8-9월 인민군에서는 각급 당 조직 지도기관의 총괄 및 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실시되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전시 상황으로 인해 로동당이나 인민위원회에서 어떠한 선거도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지도부가 인민군 내 당 조직의 인사와 관리에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웠는지 알 수 있다.[49] 특히, 본래 규정의 범위를 넘어 당 단체의 최말단 기구인 당세포까지 선거가 이루어졌음은 인민군에서 당적 지도력을 관철하기 위한 지도부의 속내를 분명히 보여준다.

다만, 인민군 내 당원에 대한 통제는 어디까지나 군대 전체의 전투력과 군사 규율을 강화하고 군인들의 충성과 헌신성을 배양하기 위함이었다.[50]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선 부대 내 당원의 모범적·적극적 활동이 중요했고 당 조직이 주도면밀하게 뒷받침해야만 했다. 비틀어 보자면, 결국 당 생활을 거친 군인들은 당국으로부터 상부에 충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될 가능성이 컸다. 또한 그들 역시 당원이라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의 지도 방침과 통제를 적극적으로 체화해내야 했다. 결국 이는 당원이 된 군인들이 향후 북한 사회에서 핵심적인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

49) 서동만, 앞의 책, 424면. 이 선거의 결과 역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관련 통계자료 역시 현재까지 발굴되지 않았다. 다만, 선거 직후 로동신문에 소개된 일부 기사에 따르면 다수의 '열성 당원'이 새롭게 초급 당단체 지도기관에 피선되었고, 이 가운데 다수가 당의 "기본 성분", 즉 노동자 성분에서 선발되었다고 한다(「조선인민군 내 당 단체 지도 기관 결산-선거 사업에서 얻은 성과」, 『로동신문』, 1952.9.26; 「비판과 자기비판의 기초 위에 전투력의 일층 강화를 결의, 인민군대 내 결산-선거 세포 총회들에서」, 『로동신문』, 1952.9.27.

50)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앞의 자료, 4면.

하는 것이기도 했다.

4. 북한지도부의 전후 복구 구상과 인민군 출신자들의 당정간부 진출

1951년 6월 중순부터 한국전쟁의 전선은 38선 인근에서 교착되기 시작했다. 한반도의 최남단에서 최북단을 톱날같이 휩쓸던 전선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 안정'을 되찾아갔던 것이다. 이와 비례하여 휴전 문제 역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여, 7월 10일 개성에서 정전회담이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포로송환문제를 두고 지리멸렬한 협상이 지속되었지만,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정전회담은 극적인 타결을 맞이하였다.[51] 여하튼 전선의 교착상태는 쌍방의 세력범위가 거의 굳어져 감을 의미했고, 이에 따라 북한지도부에서는 통치 질서의 회복과 함께 향후의 체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시 하 북한에서는 농업협동화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주의적 개조 정책을 추진하는지, 혹은 전쟁 이전의 인민민주주의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52] 이 시기 당 내부에서는 남북통일과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생산력 기반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드러났다. '당 비주류(독립동맹 계열)'는 정전이 이루어지더라도 남북 통일국가 수립의 문제가 남아 있는 한, 전국적 혁명의 단계는 '반(反)제국주의 반(半)봉건'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당 주류(동북항일연군 계열)'는 남북 분단의 고착화로 귀결된 사정 하에서 북한 지역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해야 하며, 이는 통일의 길을 요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민주 기지'를 강화하여 통일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결과 1953년 8월 로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자작소농제의 장기 존속을 전망하는 위

51)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軍史』 6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108면.

52) 당시 사회주의 이행 논의 및 이에 대한 전쟁의 영향에 대해서는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2000, 265-290면; 서동만, 앞의 책, 482-489면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에서 점진적으로 농업협동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거치며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이행의 조건이 점차로 축적되고 있었다. 전쟁을 통해 북한에서는 사영 상공업이 몰락하고 다수의 주민이 남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 구성은 이전보다 훨씬 동질화되었으며, 사영 부문의 비중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무엇보다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남한지역과의 심리적·인적 단절을 포함한 총체적 분단이었다. 남한과의 끈이 끊어져 버렸다는 점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은 전시에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53]

전시 체제 이후의 사회를 구상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기층 간부를 물색·확보하는 일이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만 명의 행정 간부들과 핵심 당원들이 전선에 동원되어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후 복구와 사회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도 간부의 수요는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전쟁의 종결 과정에서 이른바 '남로당 계열'이 대규모로 숙청됨에 따라 그 여파는 지방과 하부 단위에까지 이어졌다. 1953년 당 중앙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은 박헌영과 이승엽을 중심으로 한 그룹뿐만 아니라 남로당 조직원과 그 관련자까지 검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는 지도그룹을 각 지역의 초급 당 단체에 파견하였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360명과 금강정치학원생 1천여 명, 기타 전 남로당원 500명 등 2천 명이 새로운 조사대상이 되었다. 남로계의 상당수 하부 조직원도 당, 정부 내의 현직으로부터 추방되었다.[54]

이 같은 상황은 간부의 인적 풀(pool)로써 인민군을 고려해보는 여건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이미 한국전쟁 이전부터 남로계 인사들은 정규군으로의 진출이 용인되지 않았으며 주로 비정규군 분야인 유격전 부문을 담당[55]

53) 농업협동화 문제를 놓고 보면, 전쟁으로 인해 농민의 물적·심리적 피해는 심각했고 이는 국가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생산 부문에서는 전전(戰前) 시기부터 이루어진 노력부조 형태가 1년 내내 조직되고, 농촌 노동력의 조직화가 본격화하여 농작업이 위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계획적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일부 전선지역에서는 공동작업대가 조직되고, 많은 농촌에 부업협동조합이 조직되어 전후 농업협동화의 맹아가 되었다(서동만, 같은 책, 484면).
54) 서동만, 같은 책, 444면.
55) 김선호, 앞의 책, 499면.

하였기 때문에, 인민군 내부에서 남로계의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였다. 이와 함께 1951년 중순부터 전선이 고착화됨으로써 북한 당국은 전방의 병력 가운데 대학생이나 행정·생산직장 내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자들을 후방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후방의 복구와 전시 생산의 증대 필요성 때문에 핵심 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선이 고착화한 여건을 활용한 것이다. 일례로, 1951년 4/4분기만 하더라도 약 15,000명의 '전문가'들이 일선 부대에서 민간시설과 생산현장으로 이동했다.[56] 이와 함께 정전협정의 타결이 가시화되자 인민군 병력 규모를 축소하는 논의가 북한 당국과 소련군 총참모부 사이에 오가기도 했다.[57] 그리고 이렇게 제대한 군인들은 충분히 북한 사회 곳곳의 주요한 인적자원으로 활동할 여지가 있었다. 이를테면, 김일성은 장차 간부로 될 인물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당성이 강해야 함을 지적하고 그 척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58]

> 당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매개의 로동당원이 당에 대하여 무한히 충실하며, 당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혁명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자기의 제일 생명으로 알고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고 어느 때, 어느 곳, 어떤 조건을 물론하고 당의 이익과 원칙을 지키고 일체 부정확하고 옳지 못한 사상들과 견결히 투쟁하며 당의 조직 생활과 당의 규율을 강하게 지키며, 당과 인민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성이 강한 자는 개인보다 당과 국가를 위해 충성·희생하고, 조직적이며 단체 규율을 잘 지키는 인물로 집약되었다. 그리고 당시가 전시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김일성이 강조한 당성이 강한 간부의 후보군 가운데 군인들은 단연 돋보일 수 있는 집단이었으리라 본다. 1952년을 기준으로 방호산, 김기우 등 이중영웅을 비롯하여 352명이 영웅

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16면.
57) 「조선인민군 총군사고문이 소련군 총참모장에게 보낸 보고서, 조선인민군의 평시편제에 대한 소련 총군사고문의 제안에 대하여(1953년 5월 12일)」,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580면.
58) 김일성,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五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근로자』 12, 1952, 33면.

칭호를 받았고, 무려 30만 명을 상회하는 장병들이 국기훈장, 자유독립훈장, 군공메달 등 각종 훈장과 메달을 수여 받았다.[59] 참혹한 전쟁을 통해 죽거나 다친 병사들이 폭증해 나갔지만, 이와 비례하여 영웅과 공훈자 역시 꾸준히 증가했던 것이다. 더구나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훈을 세운 군무자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군대의 당 단체가 당원으로 흡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영웅'이자 당원으로서 상부의 신뢰를 등에 업고 예비 간부로 진출하는 데 손색이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각 부대 내에서 당원들은 전투, 정치사업 등과 관련한 업무뿐만 아니라 군수물자 관리, 위생방역사업, 식량 절약 등의 갖가지 사안들을 책임지고 사업하였기 때문에[60] 어느 정도 '관리자'로서의 경험은 축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당원이 된 군인을 간부로 활용하고자 북한지도부는 먼저 각급 예비 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학교·도당학교의 학제를 개편하였다. 먼저 중앙당학교의 경우 1년제 반, 2년제 반, 2년제 연구반으로 학급이 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공훈이 있는 인민군 전사·하사·군관 제대군인 및 '영예군인'[61]은 소정의 추천 절차와 시험을 거쳐 2년제 반에 입학할 수 있었다.[62] 중앙당학교 2년제 반의 정원은 400명이고 매년 200명이 입학 가능하였는데, 이 가운데 공훈이 있는 제대군인 및 '영예군인'은 생산직장 내 세포 핵심당원(열성당원)과 합쳐 정원의 50%까지 입학할 수 있었다. 2년제 반의 졸업생은 시(구역)·군 당위원회의 부장급 이상 간부에 발탁될 수 있도록 교육받았다.

도당학교의 경우 1년제 반, 6개월 반으로 학급이 분류되었으며, 이 가운데 1년제 반에 공훈이 있는 제대군인과 '영예군인'이 입학할 수 있었다. 정원의

59) 「영웅적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보다 큰 승리와 영광이 있으라!」, 『로동신문』, 1952.6.23.
60) NARA, RG242, SA 2009, Box 17, Item 15, 「월말 사업보고 작성에 대한 지도서, 인민군 27사 7연대 당위원회 조직부」, 1950.12.20;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제7중대 세포총회 결정서」, 1951.7.4.
61) '영예군인'은 군사복무 기간 부상으로 인해 제대하여 국가의 혜택을 받는 제대군인을 의미한다. 문미라, 「1950년대 북한의 한국전쟁 참전군인 보훈정책과 그 특징」, 『역사와 교육』 32, 역사와교육학회, 2021, 74면.
62) 「중앙당학교 및 도당학교 학제 개정에 대하여(조직위원회 제144차 회의 결정서 1953년 7월 8일)」, 『사료집』 30, 445-447면.

경우 1년제 반은 100명이었는데, 2년 이상의 당 연한을 갖고 소학교 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제대군인과 '영예군인'은 시·군 당위원회의 추천과 도 당위원회·도당학교 신입생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학할 수 있었다. 특히, 제대군인·'영예군인'과 함께 수학하는 학생들이 당세포 내 열성당원이자 "1년 이상의 사업 경험을 소유한 리 당위원장 이상 당 간부, 3급 이상 정치국 간부 및 당원인 근로단체 시군 위원회 지도원 이상 간부"로 규정된 점은 이들의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

주목할 점은 전쟁 막바지인 1953년 1월 로동당 조직위원회에서 당 상설 교육기관의 간부 육성이 미흡함을 지적한 부분이다. 특히 당 간부 양성사업 부문에서 당 하부일꾼 즉, 리급 간부의 선발 배치 및 양성사업을 중요한 과제로 내걸었다.[63] 아마도 이는 1952년 말 북한 당국이 종래의 행정 체계에 내재한 불합리성을 퇴치하고 상부의 지도력을 하부에 적극 접근시키기 위하여, 도(道)·시(市)·군(郡)·면(面)·리(里) 체제 중에서 면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64]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된 본 결정에서는 각지의 면을 폐지하는 대신에 군의 숫자를 종래의 91개로부터 168개소로 세분화하고, 종래의 수 개 리를 1개 리로 개편하기로 했다.[65] 이처럼 행정구역을 변화시킨 이유는 "낡은 행정 체계에 있어서는 지역상으로 군이 너무 크고 넓으며 리는 너무 좁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상으로도 군과 리 사이에는 대단히 거리가 멀며 군에서의 리에 대한 지도를 더디게 한다."고 설명했다. 달리 말하면, 지방 정권기관에 대한 중앙에서의 지도 수준을 높이고 광범위한 인민 대중을 국가건설 사업에 적극 참

63) 「간부의 선발 및 배치에 대하여(조직위원회 제125차 회의 결정서 1953년 1월 17일)」, 『사료집』 30, 408면.

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 지역의 행정 체계 및 구역 개편」, 『로동신문』, 1952.12.28.

65) NARA, RG242, SA 2013, Box 2, Item 213, 문화선전성, 『강연자료,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인민 정권을 강화하며 인민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국립도서출판사, 1953.3, 1면. 이미 북한에서는 1년 전인 1951년 12월 말에 내각 결정으로 「행정구역 변경 준비위원회」를 조직하는 가운데 본 사업을 준비해왔다. 또한 이 정령을 채택하기 1개월 전에는 내각 결정으로 행정구역 재편에 대한 의견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성안하도록 했다. 이런 점에서 당대 행정구역 개편에 북한지도부가 중대한 의의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여시키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신설될 각급 리 단위에는 종래에 면에서 일하던 우수한 일꾼들과 각 리에서 선발한 인원을 간부로 삼을 것이라고 선전했다.[66] 하지만 내부적으로 로동당 측에서는 "제대군인 영예군인들과 기타 제반 간부 원천을 동원하여 우수한 자들을 군 및 리급 간부로 선발하여 양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아울러 각 리의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로동당위원장의 임명은 각각 도 인민위원회와 도 당위원회의 비준을 받도록 했다.[67] 이와 같이 조치한 이유는 북한지도부가 리급 간부의 선발 및 배치 문제가 전쟁으로 인해 이완된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 하부에서 당 정책・지시・결정의 실천을 담보하는 핵심사안으로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미 내각에서는 지시를 통해 리급 간부로 파견할 '영예군인'에게 단기강습을 실시하도록 했다.[68] 이들은 국가 말단기관인 마을 인민위원회 사업을 공고히 하고 후방 인민과 전방 군대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처럼 제대한 군인들이 행정 체계 개편과 함께 군・리의 간부로 주목받은 이유는 기존의 간부 양성사업이 여러 한계를 노정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를테면, 예비 당 간부 내지는 하급 당 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당학교 6개월 학습반은 대부분 운영상의 문제점을 노출했다.[69] 혹은 각급 당 학교에서 다수의 간부들이 양성되었으나,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 봉착하여 주어진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제대한 군인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전투를 벌였다는 사회적 지위와 함께, 공훈을 세우고 당원 신분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66) NARA, RG242, SA 2013, Box 2, Item 213, 문화선전성, 같은 자료, 21면.
67) 「간부의 선발 및 배치에 대하여(조직위원회 제125차 회의 결정서 1953년 1월 17일)」, 앞의 책, 408-409면.
6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지시 제2호, 리급 간부로 파견할 제대된 영예군인들을 위한 단기강습을 실시함에 관하여(1952년 2월 1일)」, 『사료집』 24, 384-385면.
69) 함남 및 강원도의 당학교 6개월 학습반에는 향후 당간부로 발전할 수 없는 자들이 많으며,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로 함남 당위원회는 도당학교 전반기 6개월 학습반 학생 중 41.6%에 해당하는 수의 학생을 졸업 후 단지 생산직장 또는 농촌의 전직에 돌렸으며, 강원도 당위원회는 도당학교 6개월 학습반 졸업생을 병원, 화부(火夫) 등의 잡역으로 배치하였다. 「간부의 선발 및 배치에 대하여(조직위원회 제125차 회의 결정서 1953년 1월 17일)」, 앞의 책, 405면.

따라 북한지도부는 전선에서 돌아온 이들을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간부로 양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판단한다.

다만, 자료의 한계상 이러한 방침이 어떻게 시행되었으며,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제대군인을 간부로 발탁하였는지에 관한 확인은 현재까지 어렵다. 그러나 1958년 당시 로동당 조직부 부부장 원형구가 전쟁 이후 제대한 군인 가운데 총 32,568명이 노동당 및 지방 정권 기관의 사업을 위해 간부로 양성되었다고 언급[70]한 것을 보면, 정전 이전의 방침이 전후에도 계승·현실화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5. 맺음말

한국전쟁 초반 인민군은 급격히 남하하며 승리를 이어 나갔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을 기점으로 일선 부대에는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특히 전쟁 지휘부마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노정하였다. 이에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지도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지도부는 인민군 내에 당 단체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당 단체의 운영과 군사단일제의 강화를 위해 전투에서 공훈이 있는 자들을 꾸준하게 당원으로 포섭해 나갔으며, 당 회의와 인민군 지도기관 선거 등의 방식을 통해서 부대 내 당원의 통제는 물론 정치사업을 관리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군의 경험을 한 군인들은 전선이 고착화함에 따라 주요한 인적자원으로서 주목받았다. 특히, 전쟁의 지속으로 인하여 수만 명의 당정 간부가 죽거나 다치고, 전후의 체제에 대한 논의가 지도부 내에서 진행됨에 따라 간부의 수요는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후보군으로서 인민군 출신자들이 물망에 오르고, 실제로 이들을 간부로 양성하기 위한 대책이 취해졌다.

---

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관 제1서기관 피메노프 B.K.의 일지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부부장 원형구 동지와의 대담록(1958년 6월 21일)」, 『사료집』 79, 141면.

이처럼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에 당 단체를 설치하고 당원을 대폭 선발하여, 이들을 북한 사회의 간부로 활용하려 했던 점은 향후의 역사 전개를 고려할 때 주목해볼 여지가 있다. 1950년대 북한 역사의 전개에서 최대의 분수령이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이었다면, 그리고 그 심층적 배경을 '당 주류'/'비주류' 혹은 소련 측과의 전후 복구 및 사회주의 이행에 관한 견해차로 본다면, 제대군인을 단순한 예비 간부 집단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김일성의 지도력이 전일적으로 관철되었던 인민군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제대군인은 당 주류의 입장·방침을 기층 사회에 전파·확산했고, 이를 기반으로 당 주류는 급속한 방식으로 사회주의 이행을 단행할 수 있었으리라 본다. 물론 어디까지나 필자의 가설이며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지만,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 내에 당 단체 설치에 대한 연구는 이 문제를 해명하는 시발점이 되리라 판단한다.

▮ 참고문헌

1. 원전 자료

『근로자』

『로동신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국사편찬위원회 편, 『북한관계사료집』, 국사편찬위원회, 1982-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김정기, 『密派(轉向間諜의 手記)』, 대왕사, 1967.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

NARA, RG242, SA 2006, Box 불명, Item 불명, 「전선에 있어서의 인민군대 내의 신입당 수속에 대하여」, 『1950 성분지시분철, 제315군부대 문화부』, 일자 미상.

NARA, RG242, SA 2009, Box 6, Item 39, 「훈장 수여장(홍수상, 림용덕) 초안」, 일자 미상.

NARA, RG242, SA 2009, Box 10, Item 15, 「세포사업계획서 작성 방법과 그의 집행에 대하여, 인민군 27사단 정치부」, 1950.12.26.

NARA, RG242, SA 2009II, Box 불명, Item 불명, 「지령, 전투행정에 있어서 당사업 강화에 대하여」, 1950.7.17.

NARA, RG242, SA 2010, Box 1, Item 42, 문서명 불명, 1950.7.19.

NARA, RG242, SA 2010, Box 836-2, Item 53, 「모범전투원 표창사업 강화에 대하여」, 1950.8.2.

NARA, RG242, SA 2010, Box 914, Item 127, 「지령, 부대 내에서 로동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당적 사업 강화에 대하여」, 『상부 지시문철』, 일자 미상.

NARA, RG242, SA 2011, Box 8, Item 11,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당 공급세포 회의록」, 1951.1.26.

NARA, RG242, SA 2011, Box 8, Item 11,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제5중대 세포 제□차 총회」, 1951.1.25.

NARA, RG242, SA 2011, Box 8, Item 11, 「조선로동당 조선인민군 제8사단 제1련대 제2대대 제6중대 세포 제7차 총회」, 1951.1.24.

NARA, RG242, SA 2011, Box 9, Item 25.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三차 정기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 조선로동당출판사, 1951.2.

NARA, RG242, SA 2012, Box 5, Item 118,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70호」, 1950.10.14.

NARA, RG242, SA 2012, Box 5, Item 132, 1951.3.30, 「655군부대 발간, 전투통보 제36호」, 1951.3.30.

NARA, RG242, SA 2012, Box 1225, Item 불명, 『297부대 정치부』, 일자 미상.

NARA, RG242, SA 2013, Box 2, Item 213, 문화선전성, 『강연자료, 지방 행정구역 개편은 인민 정권을 강화하며 인민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국립도서출판사, 1953.3.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당 회의는 당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학교이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1951.9.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전사 하사 정치상학교재 51-15, 비겁성과 소란 조장은 반역과 동등하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1951.5.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인민군 각종 부대와 기관들에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1950.11.17.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제7중대 세포총회 결정서」, 1951.7.4.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조선인민군대 내 각급 당단체 지도기관 선거에 대한 지도서」, 1950.11.13.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조선인민군 내 당단체 사업 규정, 1950년 11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준」, 1950.11.29.
NARA, RG242, Korean, Chinese and Russian Language Documents Captured in Korea, 「사단 정치부장 동지의 지령 이첩에 대하여」, 1951.3.14.

2. 연구 논저

고재홍, 「6·25 戰爭期 北韓軍 總政治局의 位相과 役割」, 『軍史』 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軍史』 6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선호, 『조선인민군—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한양대 출판부, 2020.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2000.
김용현, 「북한의 군사국가화에 관한 연구: 1950~60년대를 중심으로」, 동국대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문미라, 「1950년대 북한의 한국전쟁 참전군인 보훈정책과 그 특징」, 『역사와 교육』 32, 역사와 교육학회, 2021.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나남, 2002.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1945-1961)』, 선인, 2005.
서홍석, 「조선인민군 충원정책의 변화와 정체성 형성(1948-1950)」, 『역사와 현실』 104, 한국역사연구회, 2017.
와다 하루키 저·서동만 옮김,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1999.
이신재,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설치 배경에 대한 연구: 한국전쟁 시기 북중 갈등을 중심으로」, 『軍史』 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역사비평사, 2003.
이주철, 『조선로동당 당원 조직 연구(1945-1960)』, 선인, 2008.
한성훈, 『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2012.
Kim Youngjun, *Origins of the North Korean garrison state: the people's army and the Korean War*, Routledge, 2017.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a Workers'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Korean People's Army during the Korean War, and Its Consequences

Seo, Hong-Seok*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nal and external reas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Workers'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Korean People's Army (KPA) during the Korean War, and explores the historical outcomes of this development.

At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the KPA attempted to seize the opportunity for victory, but the prospects for this diminished rapidly after the Battle of Incheon. As a result, the military discipline in each frontline unit of the KPA began to slacken, and military commanders were at a loss as to the path forward. The Soviet Union believed that the leadership of the KPA had collapsed, and noted the soldiers' refusal to obey commands and lack of discipline.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the North Korean leadership decided to establish a Workers'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KPA.

This require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arty members, and thus the soldiers who had served with distinction in battle were the first to be actively recruited. In addition, the admission process was simplified, and organizational initiatives such as the Movement to Create a Model Division were also employed. As the number of party members within the military increased, control over these people became an important issue. They monitored each other, making sure that each party member within a unit aided the commander by always displaying exemplary behavior and by putting the needs of other members of the unit before their own. In addition, those in the higher levels of the party systematically oversaw the actions of those in the lower levels through party meeting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later sought to train these party members to be exec-

* Ph.D. Candidate, Dept of Korean History, Korea Univ.

utive party members at central and provincial party-run schools, and when the administrative division was reorganized at the end of 1952, the Workers' Party assigned the administrative tasks of each ri (sub-municipal unit) to discharged soldiers. This historical process became the basis for these soldiers playing a pivotal role in North Korea's post-war recovery and its implementation of socialism in the 1950s.

Keywords: Korean People's Army, Workers' Party Organization, General Political Bureau, Movement to Create a Model Division, Discharged Soldiers.

접수일: 2022.09.30. ‖ 심사일: 2022.10.18. ‖ 게재확정일: 2022.11.14.